

글로벌 사회,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이 글은 2009년 11월 28일 총신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26회 기독교문화회 기조강연을 요약한 글입니다.(편집자 주).



주철기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 글로벌리제이션의 평가

20세기 후반부,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글로벌리제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경제권으로 통합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서구사회가 세계 물질문명의 발전을 주도해왔다면, 21세기에는 동아시아의 경제력이 급속히 부상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빈곤 탈피와 경제적 번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인구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서 풍요의 시대로 접근하고 있는 등 글로벌리제이션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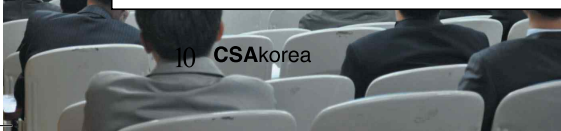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도 하루 1\$ 이하의 수입으로 생존해야 하는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세계 인구의 10억 이상이 기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5억 이상이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등 절대빈곤의 문제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겹의 해소가 심각한 문제이며, 유엔은 국제 빈곤 퇴치를 2015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추진 중이지만, 9년이 지난 현재 불과 20% 정도의 성과만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세계무역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장이 이루어져서 세계번영의 기틀이 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전했지만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는 자만에 빠진 금융 자본가들의 과도한 단기적 이윤추구가 가져온 큰 폐해였다. 이제는 자본주의

경제보다 인간적인 측면, 사회적인 배려의 필요성이 새삼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류가 당면한 글로벌리제이션의 가장 큰 부정적 여파는 환경 훼손, 특히 기후변화의 문제이다. 금세기 말까지 탄소배출 등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섭씨 6도 정도의 온도상승으로 생태계의 공멸이 예상되며,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를 2도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국제적 관리 체제로서 포스트 교토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곧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새로운 인구가 속속 문명발전의 혜택권에 접어들고 있지만, 후발 국가들의 산업화단계에서 인류가 더욱 소비해야 할 에너지와 자원을 어떻게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활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초 발생한 국제적 식량위기는 식량안보 문제의 경보를 울려주었다. 또한 앞으로 물 부족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환경기술의 개발과 규모화를 통해서 에너지절감, 신 대체에너지 경제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회문화적으로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단일문화화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고,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과 같은 문명 충돌적인 성격의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화 진행에 따른 사회적 겹,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경 간, 도시 간 이주의 문제도 현대사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신





중 독감, 에이즈 등 빈발하는 국제 질병도 인류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2. 국제질서의 관리구조문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는 국제적인 관리 체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국제상황의 변화 속에서 글로벌 체제를 관리하는 노력의 중심에는 유엔이 서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질서를 유지해온 국제적 질서관리체제는 유엔체제를 중심으로 IMF, World Bank 국제 금융관리체제, GATT/WTO 중심의 세계무역체제 등이 있었다. 이들 기구는 전반적으로 세계질서를 잘 다루어왔다. 1992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자본주의의 일방적 승리로 기록됐지만,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보다 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책임이 강조되었고,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글로벌콤팩트라는 기업 사회 책임 운동이 10 여 년 전 시작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다 나은 세계질서의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동노력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지난 유엔은 세계적 차원에서 대국적인 평화기반을 유지해왔으며, 세계 도처의 분쟁해결에 기여해왔다. 1992년 냉전의 종식기를 지나며 한때 절대 평화의 구현이 가능하리라는 환상도 있었으나, 이후에도 빈번한 분쟁, 여러 가지 스캔들의 발생 등으로 유엔 자체도 투명성과 책임성의 증대라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야만 했다. 국제평화와 안보의 증진, 경제적 기반의 확충과 인류 복지의 향상, 인권의 창달이라는 기본적 목표를 위해 유엔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유엔은 기존 정부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및 기업들과도 함께 공조협력하면서 세계질서를 다뤄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유엔체제는 깨끗하고 투명해진 유엔본부와 17개 전문기구 등을 중심으로 세계질서의 창달에 기여해야 한다. 현재 유엔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기후변화 대응 신체제의 수립이며, 천년개발목표의 달성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 유행병에 대처, 유엔의 시스템을 보강하여 국제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한 금세기 중 해결되지 못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및 한반도 통일 문제, 아프리카의 인종, 국경 분쟁 문

제의 해결과 치유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3.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국제 상황적 인식 속에서 한국이 진입을 앞두고 있는 선진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선진국이란 우선 상당한 고소득의 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이 고르게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이란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제이슈의 논의를 주도해온 국가들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OECD 국가들로서 30여 개국 남짓의 소수국가들이며, 유엔 무대에서는 남반구의 국가 그룹인 77그룹과 대치되게 북반구의 국가 그룹을 형성하며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를 더 분류해 본다면, 그 중에서도 강국으로서 강성 파워를 가진 국가들과(미, 영, 불, 독 등 G8 구성 국가 등)과 군사적, 정치적 강국은 아니나 연성파위의 강국으로서 기능하는 국가들(북유럽 등)이 있다.

한국은 이미 1996년에 OECD에 가입했으나, OECD의 원조위원회(DAC)에는 2009년 말에야 가입했으며, 아직도 기후변화대응체제, 세계무역기구 주도의 다자무역협상체계에서는 농업문제에 관한한 개도국 지위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절대 빈곤국에서 선진국 권으로 도약한 경제적 강국이며, 정치적 후진국에서 민주국가로, 문화적 피수탈상태에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매우 드문 사례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세계 13위권의 경제규모, 세계 9위권의 무역국가의 지위, 외환보유고 2700억 여불, 유엔분담금 1.85% 수준 납부, 매년 유엔 평화유지군 기금에 1억불 이상을 납부하는 국가로서, 반도체, 조선, 철강 생산 등 여러 산업이 세계최고 수준에 오른 국가로서 자부심을 지닐만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OCED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있고, 이제는 도시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미국 및 EU와 자유무역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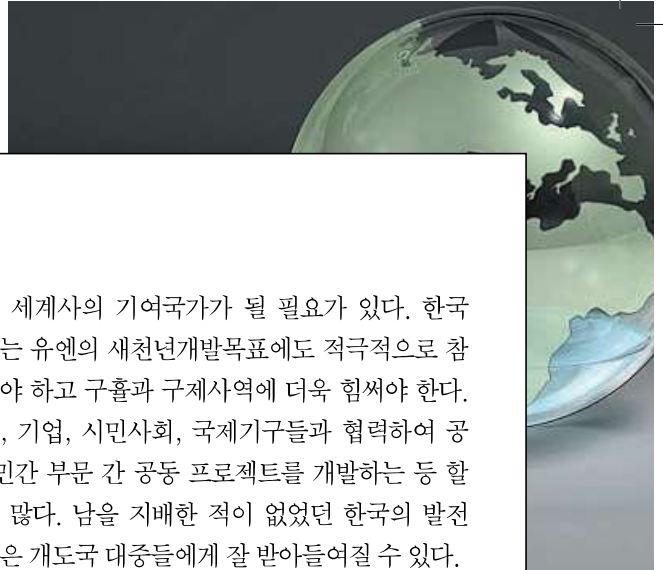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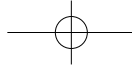
정을 각각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FTA 연결망의 중추적 기능도 하고 있다. 이제는 곧 세계 신질서의 문제를 다루는 G 20의 의장국까지 수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비결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주저 없이 한국의 높은 교육열, 효율적인 정부운영 등의 사례를 들것이다. 그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에 따라 한국을 세워주시고, 한국인을 높여주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선교사 파견 20,000여 명의 세계 제 2위권 복음 수출 국가이자 영적인 강국으로 한국이 대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 땅을 쓰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경제발전이라는 수단을 주시고 여러 곳의 사람들을 일깨우라고, 경험과 지식기반의 확충을 허락해주신 것이다.

4. 글로벌시대 한국의 역할

한국은 특이하게도 유엔의 절대적인 후원 하에 국가의 생존 및 초기 발전을 이룩한 국가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공히 이루어 이제는 선진권에 접근하고 있다. 유엔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와 유엔평화유지군 참여를 늘리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외원조 공여국으로의 장정을 내딛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실적은 복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녹색경제의 추진 등은 빠르게 앞서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많다. 선진권 경제로서 꼭 필요한 서비스 경제부문의 발전은 아직도 취약하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는 정부부문에서 어느 정도 세계 수준을 따라가고 있으나, 기업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국제문제 토의에의 한국기업들의 참여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기업들의 참여는 아직도 부족하다. 국제적으로 사회책임을 주도하는 유엔의 활동에도 우리기업의 관심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국





민에 대한 외부사회의 인식은 아직 높지 못하다. 인위적인 국가브랜드파워의 제고 추구보다는 한국인은 성숙된 국민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북유럽 국가 국민의 수준까지로 우리의 대외 이미지가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출신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 한국의 G20 참여 등은 우리 국민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한 참여를 계속 높여가야 한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면서 이를 위해 유엔시스템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잘 훈련시켜 국제무대에 내놓아야 한다. 넘치는 에너지와 열의를 가지고 좋은 세계를 만드는 데 참여하겠다는 젊은 층을 양성하는 데 한국교회는 인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동북아에서 북한 핵 문제를 능히 해결해내고 안정적 지역평화체제와 경제 협력 체제를 만들어, 남북한 화합과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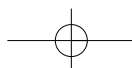
5. 글로벌사회속 한국기독교의 역할

민주주의, 경제,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데 한국기독교는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 안팎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의기소침해질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뜻있는 젊은이들을 일깨우며, 복음적 사명의식을 새로이 고취해야 한다. 한국기독교는 신도 수 1,000만, 5만 여 교회를 포괄하고 있고, 광대한 한인 디아스포라 망을 가지고 있다. 20,000명의 해외선교사 파송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북한과 중국, 동북아와 땅 끝까지 확장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한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현실의 변화가 일어난다. 선교적 열정과 헌신을 가진 젊은이들을 배출하는데 한국교회는 계속 앞장을 서야 한다. 비록 최강국은 아니나, 영적 연성 파워의 강국으로서 강대국 간 사이를 조율하며 앞으로 나아

가는 세계사의 기여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구휼과 구제사역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공공, 민간 부문 간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할 일이 많다. 남을 지배한 적이 없었던 한국의 발전 경험은 개도국 대중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서구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고, 교회들 간 및 선교사간 협력을 조율하고 교단 간 교류와 협력, 소통을 실현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유럽 등 복음의 쇠퇴지에는 한국의 새롭게 무장된 젊은 사역자들을 파견함으로써, 이들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도울 수가 있다. 또한 전문가들을 더 양성하여 세계로 내보내야 한다. 보다 나은 세계,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세계를 만드는데, 오늘의 한국은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노력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차세대의 무대는 매우 크고 넓다. 열정과 비전, 확신이 있는 청년들을 키워서 내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맡아야 할 일은 젊은이들을 바르게 키워 우리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고, 기독교공동체를 땅 끝까지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교회의 재건을 돕고, 아프리카 등 세계 낙후지역의 개발을 돕는 것이 21세기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우리는 겸손한 보수자로서, 성실한 봉사자로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 정의의 국제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간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견한 주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

“땅이 짝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든게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61장 11절)



혼돈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유정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는 충성만 없을 뿐, 피해 규모는 실전을 능가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동안 ‘복음(good news)’으로 여겨졌던 인터넷은 이제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역기능을 노출하고 있다.

지난 7월 전 세계는 디도스 공격의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했었다. 디도스 공격(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 DDoS)이란 해킹을 통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의 하나로, 특정 컴퓨터에 대량의 접속을 유발해 해당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와 많은 정부기관들 그리고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 등도 이 공격에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이버 전쟁은 한 쪽에서 무기 수준을 높이면 다음에는 다른 쪽에서 무기 수준을 높이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비경쟁과 흡사하다.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 피해를 입으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오고, 또 다시 그 백신을 피해갈 수 있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와 전보다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이러한 군비 경쟁은 생물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뺨꾸기(Cuckoo)와 북미

산찌르레기(Brown-headed Cowbird)이다.

뺨꾸기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새끼를 기르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아 숙주 새가 자신의 새끼를 대신 키우게 한다. 뺨꾸기가 탁란하는 숙주 새는 개개비, 때까치, 붉은머리오목눈이, 종다리, 할미새, 족새 등 10여 종이 넘지만, 그렇다고 해서 뺨꾸기의 암컷이 모든 숙주 새의 둥지에 무작위로 탁란하지는 않는다. 대개 뺨꾸기의 암컷은 자신의 알 색깔과 비슷한 알 색깔을 가진 특정한 숙주에만 탁란한다. 예를 들면 개개비에만 탁란하는 뺨꾸기는 개개비 알과 비슷한 색깔의 알을 낳는다. 그러나 종종 예외가 있어서 숙주 새가 경계심이 없어 자신의 알과 기생자의 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숙주의 알과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가진 알을 기생자가 낳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 유럽바위종다리(dunnock)는 다른 숙주들과는 달리 자신의 둥지에 모양과 색깔이 다른 알이 있어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자신의 알로 받아들여므로 바위종다리에 탁란하는 뺨꾸기(dunnock-cuckoo)는 자신의 알을 바위종다리와 비슷하게 모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뺨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의 알을